

무 정 : 제 2013 - 7호

2013. 7. 15

수 신 : 대표이사

제 목 : 전자무역인프라(서비스)기본료 부과 안내

국가종합무역자동화사업에 베풀어주신 귀사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
한국무역협회와 KTNET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총1,300여억원을 투자하여 전자무역네트워크를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역(수출입요건확인 등), 외환(대금결제 등), 수출입 통관 및 물류업무 전 과정의 One-Stop 처리를 통하여 무역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무역 업체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 절감, IT투자비용 절감 등 매년 6조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

더욱이 지난 2006년 말 ‘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정부로부터 ‘전자무역기반사업자’로 지정됨을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인 ‘uTradeHub’의 구축과 운영에 기업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으며, 이 외에 KTNET은 정부로부터 2002년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전자문서중계사업자, 공인전자문서센터,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,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등을 통해 공인된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특히, 이러한 모든 전자무역서비스는 VAN/EDI 방식과 인터넷 기반의 XML 방식으로 병행 서비스됨으로써 어떠한 시스템 환경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Dual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이로써 인터넷환경에 적합한 ebXML 서비스는 물론 미국, EU 등 해외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VAN/EDI방식의 서비스까지 동시에 제공되어 XML 서비스 장애 시에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.

그러나, 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세계 수준의 보안시스템 구축,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개발 및 3중의 Back Up 시스템 구축 등에 매년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금까지 재원의 60%를 무역업계의 전자무역인프라(서비스)기본료 납부를 통해 조달하고, 나머지 40%는 공인인증 서비스 등 KINET 자체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.

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돼온 uTradeHub는 국가기간무역전산망으로서 상역, 외환, 통관, 물류 등 무역의 전 영역을 단일플랫폼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입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직·간접적으로 활용하게 되며, '수익자 비용분담의 원칙'에 따라 기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출입업체에게 안분하여 매 수출입건마다 전자무역인프라(서비스)기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한편, 기본료를 성실히 납부해주시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통계정보(CTI) 및 수입화물도착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
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헤량하시어 국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, 다시 한 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- 전자무역인프라(서비스)기본료 단가 안내 -

1. 건당 단가

수출입건수 구간	1 ~ 10	11 ~ 100	101 ~ 500	501 ~
건당 단가(원)	1,400	1,200	1,000	800

2. 소액 공제 : 월 10건 이하인 경우 요금부과 면제

3. 문 의 : KINET 고객센터(1566-2119) “끝.”

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

